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에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각 동호회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호회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교육부 회의가 2부 예배 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5일(화) 오전 10시 만리현교회에서 있습니다.

감자 신청하신 분은 오늘 찾아가세요. 옥수수 판매 예약 받습니다. 10개 8,000원 20개 14,000원이고 다음 주일(20일)에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주중에 초복(18일)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지나친 보양식은 삼가십시오.

창 25:19~34 / 시 119:105~112
롬 8:1~11 / 마 13:1~9, 18~23

미정

오늘 식당 봉사 : 안홍숙 임영선 이증자 이수정 박정숙 홍순구 최재욱
 다음 주 식당봉사 : 정영선 홍춘숙 김희우 김현주 김경혜 최숙화 김세진
 오늘설거지봉사 : 중고등부교사
 다음주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떡·커피 대 접 : 오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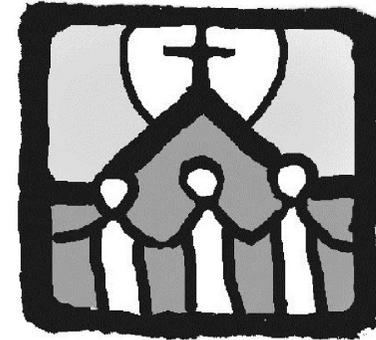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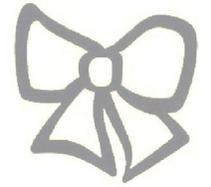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무더위 속에서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삶의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갈지언정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런 더위 속에서 영글어가는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맺어야 하는 영혼의 열매를 더욱 분명히 그려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지(聖地)라는 말이 무색하게 피의 보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100여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절반이 어린이들과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 그 땅에서 총성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높은 분리의 장벽이 무너지고 화해와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명자	권미숙	김근종	정옥영	김명순	이교영	김문주	김성한	조영순
김애순	김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일량	이은옥	김정길	최숙화	김정수
김정진	김혜정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철수	유영남	김필순
김희진	박홍재	노성희	김만균	문금석	문복순	박기영	박시내	박예림
박창운	허정운	방극숙	방민방	방준배	배삼순	백묘현	서원금	서정순
송형운	하미림	원용일	최현선	유금주	윤영미	윤주원	최윤선	이광석
이경희	이광용	형인순	이국노	김민화	이예서	이왕준	송상경	이우상
이계월	이우원	옥귀희	이윤석	박안수	이응석	이은경	이인웅	오송경
이호원	장아름	정두리	정연희	정완수	김재광	주은경	최양순	추현영
한기택	한상경	한상익	정영선	허명선	홍성식	이유리	홍춘숙	

감사헌금

김진중	문복순	박기영	박창운	허정운	오미숙	이광재	조혜운	주명재
한성자	한미영	홍지희	무명6					

생일감사헌금

구명자 박상욱

녹색꿈헌금

박호규 강영님 정일현 김대원 김연서 무명2

	백혜숙	박성희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최경미	임정자
	장영숙	신영신	문영혜	박정숙
	노순옥	진정숙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야외	백묘현
	권미숙	박미영	박미영	권미숙
	김금순	김금순	유금주	김금순
	곽권희	윤수진	윤수진	김필순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김명희
	정영선	홍춘숙	김희상	김송민
	박혜경	박혜경	심상숙	김민화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종		

빈집의 약속

- 문태준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른 들이 살았다

별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심검당 별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어느 날에는 늦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하였다

겨울 방이 방 한 칸에 묵은 메주를 매달아 두듯 마음에 봄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러나 하릴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르는 때가 나에게는 행복하였다 수십 년 혹은 백 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몽곳이 앉은 그 나무들의 울울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 불렀다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이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그러나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의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메워졌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란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것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요 토대입니다. 삶으로 이 고백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 생명과 참 사랑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설교 : 김재흥 목사 기도 : 박영신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한인철 목사	공동기도 윤석철 장로	하현철 권사 강세기 집사

7	영접위원	박성실 허호범 김훈동 유경순 박경원 박시내
	헌금위원	한상의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부패(발효)를 통한 순환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시간과 함께 모습을 바꾸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 ‘발효’와 ‘부패’를 통해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상은 균의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원래 천연균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재료를 부패시킬지 발효시킬지, 그것의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재료가 사람의 생명을 키우는 힘을 갖추고 있으면, 균은 빵이나 와인처럼 인간을 즐겁게 하는 음식으로 그것을 변화시킨다. 이런 재료에 균의 작용이 일어나면 음식은 더 맛있어지고 영양가와 보존성이 높아진다.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도 한다. 이것이 바로 발효 작용이다.

한편 생명을 키우는 힘이 없는 재료라면, 균은 그것을 안 먹는 게 좋다는 신호를 사람에게 보낸다. 말하자면 재료를 무참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때는 사람이 먹으면 해가 되는데 ‘부패’작용이 바로 그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발효도 부패에 포함되며, 이 두 가지 모두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현상이지만, 인간에게 유용한 경우에는 발효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패라고 부른다.

발효와 부패는 모두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 균의 작용을 통해 자연 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스트처럼 인공적으로 배양된 균은 원래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물질마저도 억지로 일정 기간 썩지 않게 만들어버린다. 균은 균인데 자연의 섭리를 일탈한 ‘부패하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균인 것이다.

첨가물과 농약 같은 식품가공 분야의 기술혁신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일으킨다. 시간과 함께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자연의 섭리에 반해 부패하지 않는 음식을 만들어낸다.

이 같은 부패하지 않는 음식이 먹거리의 가격을 낮추고 일자리를 값

싸게 만든다. 나아가 싸구려 먹거리는 먹거리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사용가치를 위장함으로써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할 기술과 존엄을 빼앗아간다. ...

시간에 의한 변화의 섭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돈이다. 돈은 시간이 지나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패는커녕 오히려 투자를 통해 얻는 이윤과 대금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로 인해 끝없이 불어나는 성질마저 있다. 곰곰이 따져보면 참 이상하지 않은가? ...

자연계에서는 균의 활약을 통해 모든 물질이 흙으로 돌아가고, 살아있는 온갖 것들의 균형은 이 ‘순환’ 속에서 유지된다. 가끔 환경이 변해 균형을 잃을 때도 순환은 자기회복력을 작동시켜 균형 잡힌 상태를 되찾게 한다.

그 같은 자연의 균형 속에서는 누군가가 독점하는 일 없이도, 누군가가 혹사당하지 않고도 생물이 각자의 생을 다한다. 부패가 생명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자연의 섭리를 경제활동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각자의 생을 다하기 위한 배경에 부패라는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부패하는 경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온화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빛나게 해주지 않을까?

자연계의 부패하는 순환 속에서는 때로 균들이 빵이나 맥주, 전통술 등 고마운 먹거리를 만들어주었다.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당화)하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말이다. 균이라는 생명의 작용이 인간에게 선물한 발효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었다.

균이 했던 것처럼 사람이나 지역도 부패하는 경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발휘하면 삶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 와타나베 이타루,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굶다」 중에서